



My Story in God's Story

☎ **매담 및 정리:** 유경상 (CTC 대표), 사진: 김진주 (본지 편집장)
 지난 7월, 월드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세계관 수련회를 진행하기 위해 방한한 심재승 교수를 만났다.

심재승: 저는 도르트 칼리지(Dordt College)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도르트 칼리지는 미국 개혁 교단인 CRC(Christian Reformed Church) 소속으로 미국 아이오와주에 소재한 기독교대학입니다. 이곳에서 가르친 지 8년째 됩니다. 저는 거기서 개혁신학, 켈빈의 기독교강요, 기독교 세계관, 현대신학과 같은 신학 과목과 우리 학교의 포어 커리큘럼이 되는 인본 기초 과목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제가 주력하고 있는 일은 국제기구인 IAPCHE(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Promotion of Christian Higher Education)의 일입니다. 그곳에서 저를 파송해 주어서 기독교세계관, 기독교 학문, 기독교대학 교육을 교수들에게 훈련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 필리핀, 타이완, 한국의 기독교대학 교수들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제가 올해 도르트 칼리지에서 시상하는 John Calvin Award를 받았습니다. 그 상은 기독교적인 사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잘 가르친 교수를 한 사람 선정하여 시상하는 것인데, 제학생, 졸업생, 그리고 은 학교 커뮤니티에서 종합적으로 선정하는 상입니다.



유경상: 그렇군요, 짧은 소개 가운데도 기독교 세계관 교육에 대한 교수님의 열정이 느껴집니다. 최근에는 어린이를 위한 기독교 세계관 교육 교재인 『기독교교육선언(교육과학사)』을 출간하시고 그 내용을 토대로 잠실교회 어린이 여름캠프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 배경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기독교교육선언』 출간되고 잠실교회에서 캠프를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IAPCHE 강의를 통해 만난 교수님들과 구체적으로 일하면서 생겨난 결과물입니다.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학문, 기독교 교육에 관한 이야기는 많으나 그것을 구체적으로 자기 분야에 조명하거나 집목하는 것이 드문 상황 속에서 이러한 결과물들을 맺었다는 점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진행해 주신 이대부속초등학교와 잠실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3년 전에 한국에서 와서 Faculty Enrichment Program을 운영할 때 이화여대 사범대학 교수님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것을 계기로 이대부속초등학교와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대 사범대 교수이면서 이대부속초등학교 교장이신 김정효 교수께서 기독교교육의 기초를 제공하는 문서를 요청하셔서 15페이지 분량의 교재를 써 드렸습니다. 그 후 그 내용을 이대부속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이 배우고 있었고, 2, 3년 지나면서 주변의 여러 교회와 기독교학교에서 그 자료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교사용 해설서를 포함하여 어린이를 위한 기독교 세계관 교육 교재인 『기독교교육선언』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 교재를 이대부속초등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고, 분당의 샘물학교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4년 전, 지금은 은퇴하신 원광기 목사님과 잠실교회에서 강릉에 기독교학교를 세우기를 계획하면서 서 그분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기독교학교를 세우기를 원하는가? 그냥 일반 과목을 가르치고 거기에 채플만 더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아이들에게 기독교교육의 기초를 바탕으로 교육을 제정립할 것인가?”, “좋은 대학, 명문대학 가기를 원하는 부모들의 열망에 어떻게 부합할 것인가?” 등의 질문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에 대해 논의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마침 『기독교교육선언』이 출판되고 이렇게 잠실교회 어린이 여름 캠프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부속초등학교와 잠실교회와의 만남과 더불어 『기독교교육선언』을 출판하고 어린이 여름캠프를 운영하게 된 중요한 계기는 도르트 칼리지의 한국 학생들과 만나게 되면서였습니다. 지난 겨울 동안 이 책을 준비





하는 중에 한국 학생들과 교정을 위한 스터디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그들이 이 책의 내용에 심취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면서 울기도 하고, 큰 감동과 도전을 받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한국 사회 어린이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할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재조명하는 나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가서 자신들이 도전받은 것처럼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모였고, 6개월 동안 함께 준비한 결과 잠실교회에서 여름캠프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리해 보면 제가 수업 외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쓴이 부였던 IAPCFH 사역과 이를 계기로 연결된 이태부 속초등학교를 통해 교재를 준비하게 된 일, 그리고 도르트 칼리지의 한국 학생들과 함께 캠프를 준비하게 된 일 등 이 모든 일이 함께 어우러져 이러한 결과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감사한 일은 기독교 세계관과 삶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글로 정리하여 출판하게 되고 또한 이것을 일선 교회와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경상 : 어린이 기독교 세계관 교육 교재인 '기독교교육선언'에 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심재승 : 이 교재를 준비하면서 한국 사회의 어린이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국 사회의 큰 문제 중 하나인 왕따와 빈이빈 부익부 현상, 공부를 통해 사람을 평가하는 것 등이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초등학생들 사이에도 큰 갈등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모습에서도 구원받은 것과 구원받은 삶 사이에 큰 괴리감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도 영생을 위해 중요한 일임에도 실제로 그러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는 왕따를 비롯한 관계 문제와 초등학생들도 벗어날 수 없는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공부해야 하는 이유와 같은 문제들을 다루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하나님의 구속사를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어떻게 기독교인의 가치를 가지고 살도록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다시 말해, 어린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 세계 속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 빛과 소금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루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은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인 창조, 타락, 구속의 틀에 기반을 두지만, 중점을 둔 것은 구속된 자의 삶에 대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의 관계를 이야기하기 위해 먼저 관계의 근원이 되는 창조와 생명을 설명했습니다. 생명이란 사람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아 즐겁게 누려야 하며, 우리의 생명이 소중한 만큼 내 친구도 소중하고 또게 한 마리를 포함하여 모든 생명체가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생명의 중요함은 자연스럽게 공동체로 연결됩니다. 가정이 왜 소중한지, 친구 관계가 왜 소중하고 친구들을 파들러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포함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함으로써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도록 안내했습니다.

또한 모든 어린이가 힘들어하는 공부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어린이들이 공부를 힘들어 하는 이유는 왜 공부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창조와 구속에 근거해서 설명했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소중히 명령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알아야 하고 그것이 바로 세상에 대하여 공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1등을 차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소중히 사명으로 세상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함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언장선에서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가지고 자신의 직업 분야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구속된 삶에서 놀이 역시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인터넷 게임과 가상 세계의 유희 속에서 자신의 세계 속으로 빠져들어 소동이 일어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럿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건전한고도 하나님이기때해서는 적극적인 놀이는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도 영생을 위해 중요한 일임에도 실제로 그러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는 왕따를 비롯한 관계 문제와 초등학생들도 벗어날 수 없는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공부해야 하는 이유와 같은 문제들을 다루어보고자 했습니다.



캠프를 마친 후 어린이들이 소감을 적었는데, 감동 어린 이야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내가 소중한 것을 느꼈다.”, “내가 나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소중한다는 것이 내게 감동을 주었다.”, “공과시간에 배운 소중한 나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자살할 생각, 기출할 생각만 진땀 흘렸는데 이 공과를 듣고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 “나는 네 가지 공과 중 영파에 대한 것이 마음이 걸렸다. 나는 한 작은 없지만 본 적은 있었다. 그것도 또한 범죄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르다. 내가 한 걸음 다가가는 친구가 될 것이다. 나는 앞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것이다.”, “나는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배울 때 제일 좋았던 것 같았다. 하나님을 위해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어서 좋았다.”

유경상 : 교수님의 이야기가 '기독교 세계관의 이해와 적용의 실제 사례인 것 같이 큰 도전이 됩니다. 이러한 사례가 더 많아지기 위해서는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지(what), 왜 중요한지(why)를 넘어서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며, 어떻게 실천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how의 문제에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세계관 교육을 하고 있어서인지 how의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실제로 '기독교교육선언'의 내용을 가지고 집실교회에서 어린이 어뮘캠프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점검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심재승 : 이번에 운영한 캠프의 주제는 “My Story in God’s Story”입니다. 이것은 도르트 칼리지 1학년에게 기독교적인 사고와 삶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거기서 사용하는 주제입니다. 이것은 나의 삶이 나 혼자 스스로 헤쳐나가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이라는 큰 이야기 안에 있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 개개인의 삶이 무한경쟁 사회에서 주눅 들고 어릴 때부터 열등감에 빠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하게 만드셨고, 망가진 나를 그분의 아들을 통해 구원하셨으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내가 있음을 알도록 했습니다. 어린이들의 생각과 삶의 바탕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My Story in God’s Story”는 나는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나, 망가졌지만 돌아온 나, 구속된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구속된 나는 관계를 통해 살려지는데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첫 번째 관계는 가정과 친구 관계이며, 두 번째는 공부에 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어린이들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 도르트 칼리지 한국인 학생들과 함께 지난 6개월 동안 여름캠프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캠프를 진행하면서 중점을 둔 것은 우리가 전달하는 이야기가 아이들에게

개념으로만 머물지 않도록 “듣고 생각하고 느끼고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캠프는 설교, 소그룹 성경공부 나눔, 활동, 저널이라는 신화과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설교는 “이야기”라고 하여 일반적인 설교나 강의기보다 어린이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문제점을 올바르게 보고 하고 그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다루지 이슈를 던져 줍니다. 그리고 소그룹 성경공부 나눔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슈들을 어떻게 보시고 어린이들을 인도하시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게 합니다. 그리고 내용과 관련된 활동을 실제로 해 봄으로써 내용을 경험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널 시간을 가져 설교·소그룹 모임·활동을 통해서 자신이 배우고 경험하고 느낀 것을 정리하고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신화과정을 통해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생각하고 느끼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배경과 내용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더 많이 관여하고 싶고 열정을 쏟고 싶은 것은 그 내용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가정어린, 학교는, 교회는지 어떻게 실제로 살아가고 살아갈 수 있는가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망가지고 있는 아이들, 실제로 죽어가고 있는 청소년의 삶에 들어가 이야기하는 것이 제 꿈이었는데 이 캠프에서 바로 그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캠프를 준비해 왔고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2박·3일 동안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몇몇 아이들은 짐승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질문에 열심히 대답하고 가끔 좋은 질문도 던지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느낌을 받습니다.



“My Story in God’s Story”가 캠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도 계속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는 신앙 공동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모의 인식이 중요한데 “입시교육과 상관 없이 자녀를 잘 키우자.”라고 말하면 현실적으로 10명 중 1명의 부모만 움직입니다. 나머지 9명의 부모는 예수를 믿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우리의 교육 현실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며 타협해 버립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독교교육의 타월함이 드러나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가르치는 사람, 바로 기독교인 부모와 교사들의 역할입니다. 그들은 인간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며, 창조·타락·구속의 이야기가 실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임을 인식하고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그저 종교적인 신앙고백으로 그치지 않고 사람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또 만드신 창조계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를 포함함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뿐만 아니라 세상도 잘 아는 것이 필요함을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먼저 진리의 포괄성과 공공성, 그리고 탁월함을 경험하고 그것을 기르집과 삶에 반영하게 될 때 학생들의 변화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도 저같이 미국에서 대학교수로 있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이런 일을 실제로 진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My Story in God's Story"의 중요성과 의미를 공감하는 교회와 학교에서 이것을 사용하셔서 지속적으로 더 많은 아이들에게 전파되길 좋겠습니다. 기독교교육선언을 쓴 이유로 가정과 교회와 학교에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미 두 학교에서 쓰기로 했고 교회에서도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제로 기독교교육선언을 교육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 안내서에 이대부속학교 신생남들이 직접 사용한 수업계획안들과 예시들을 함께 실어 놓았습니다. 또한 캠프를 염두에 두고 30페이지 분량에 되는 네 번의 설교와 네 번의 성경공부 자료를 함께 실어 놓았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하면 저는 언제든지 쓸 수 있으며 활성화를 위해 기꺼이 협력할 마음이 있습니다.

유경상 : 교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은 기독교 세계관을 전달하는 일, 즉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 더 나아가 기독교세계관 운동이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심재승 : 기독교 세계관 교육은 교회의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공부의 대상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학자들이 연구해야 하고 가르쳐야 하겠지만, 결국 그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생각과 삶을 위한 양식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내용이며 부회의 주제입니다. 네덜란드와 북미주에서 이러한 교육을 교회에서 시작했고 그것을 공감하는 교회들이 기독교교육을 설립했기 때문에 목회와 교육에 일관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삶의 역사 가운데서 복음이 전파되어 구원과 구원된 사고와 삶 사이에 괴리를 가진 채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나중에 전파된 기독교 세계관은 마치 영혼구원에 더해진 개념처럼 이해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충분히 학자들을 중심으로 시작되고 전개되었습니다. 저는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구원임을 부회에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창조로 시작하고 새 창조로 마치는 포괄적인 하나님의 구속 드라마임을 실제 목회에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목회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구속의 대상이 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하는 공부와 일, 인간관계와 놀이에서 기독교적인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실제 삶에서 기독교적인 꿈과 비전,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인터뷰(대담 및 정리) : 유경상 (대표) 기독교세계관학술훈영회 신학 청년세계관교육기관인 크리스천생강센터 (CHRISTIAN THINKING CENTER) 대표로 가정과 학교에 기독교세계관 교육프로그램과 교재를 제공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학부에서 불학을 전공하고 MEB(앤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에서 기독교세계관을 전공했고 백산대학교에서 기독교철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원신에 있는 센터에서 어린이·청소년 세계관아카데미를 거룩한말씀학교에서 어린이세계관학교를 진행하며, 아세아연립신학교에서 기독교세계관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어린이용 세계관 교육 교재 기독교교육선언 어린이를 내게 오게 하라

이해지 (이대부속중등학교 교사)

책의 취지

『기독교교육선언』 어린이를 내게 오게 하라는 초등학교 고학년 어린이들이 자신의 삶의 전반을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하여 조망할 수 있도록 돕는 책이다. 요즘 기독교학교와 기독교사에 의한 교육 현장에서는 교과 시간을 비롯한 학교생활 전반을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하여 접근하는 시도가 무르익고 있다. 이는 기독교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과 성경 수업 시간을 운영하면서, 다른 나머지 시간은 성경과 관련 없이 생활하는 것을 방지하는 이원론적인 접근의 한계와 문제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움직임이다. 이런 맥락에서 출판된 이 책은 어린이들이 자신의 생활 전반을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의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인목을 가질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저자의 말을 빌려 이 책의 취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독교교육선언』은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로 하여금 구원된 삶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그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교재로 고안되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알며,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과 기독교적인 사고를 가지고, 스스로 행복하고 세상과 사회에 유익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것이 본 교재의 목적이다. 어린 학생들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경행하고 따라서 살도록 돕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중요하거나 그들이 당면한 주요 이슈들에 대하여 창조, 타락, 구속의 서술형식을 따라 해설하였다. 『기독교교육선언』교사가이드북에서

따라서 어린이용 『기독교교육선언』은 기독교 신앙고백의 핵심인 죄로부터의 구원을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그 이후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어린이들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생각하고, 경행하고, 공부하고, 세상에서 살도록 도울 수 있는 삶의 각 주제에 대한 기독교적 해석을 신인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다루는 삶의 주제에는 구속된 삶, 생명 등과 같은 일반적인 생활에 관련한 것들도 포함하지만, 특히 어린 학생들에게 중요한 이슈가 되는 공부나 놀이, 그리고 미래 일과 직업 등에 대한 주제를 창조 · 타락 · 구속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있어,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전반적인 삶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보는 것을 돕는다.

책의 구조

어린이용 기독교 세계관 책인 『기독교교육선언』은 어린이가 직접 읽을 수 있는 어린이용과 이 교재를 가지고 지도하는 교사가 참고할 수 있는 교사 가이드북, 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어린이용 교재인 『기독교교육선언-어린이를 내게 오게 하라』는 15개의 단원과 46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은 다시 창조, 타락과 구속, 회개, 소망의 네 개 주제로 묶여 있다. 기독교 세계관의 기초가 되는 창조와 타락, 구속은 앞부분에서 다루고, 이 책에서 많은 조항으로 할애하여 설명하는 부분은 회개에 대한 것이다. 15개 단원을 주제에 따라 묶어 정리하면 오른쪽과 같다.

1. 시작과 요약
2. 성경
3. 선한 창조
4. 죄로 망가진 세상
5.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약속
6.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7. 하나님의 구원은 만물을 회복한다
8. 구속된 삶
9. 생명
10. 공동체
11. 학교와 교육
12. 일
13. 놀이
14. 소망
15. 마지막

교사 가이드북에는 어린이 교재인 『기독교교육선언』-어린이를 내게 오게 하라, 에 대한 저자의 해설과 활용의 예가 소개되어 있다. 앞부분은 어린이용 『기독교교육선언』 전반에 대한 해설을 비롯한 조항 별 세부적인 해설이다. 해설 부분에는 어린이용 책자에 실린 본문과 삽화를 그대로 실어 교사가 가이드북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후 반부에는 어린이용 『기독교교육선언』 책자를 학교나 교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업안과 캠프 활동 계획의 예가 소개되어 있다. 이 책은 학교나 교회에서 모두 사용 가능한데, 활용의 예에서 소개하는 방식은 기쁜별, 장소별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대신, 학교나 교회의 공과, 소그룹과 같이 수업 장면에서 진행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교안 형태의 안내서와 캠프 등과 같이 단시일에 집중적으로 주제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안내서 형태로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기독교 교육 선언』을 활용하는 교사는 자신의 목적과 상황에 맞게 다른 형태의 안내를 이 교사용 책자에서 받을 수 있다.

활용의 경위

실제로 『기독교교육선언』은 초등학교 현장과 교회 여름 캠프에서 사용되고 있다. 2012년 잠실교회 초등부 여름캠프에서는 본 교재의 캠프용 안내서에서 제시하는 바대로 이 책자를 활용하였다.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반응에는 공부하는 자신의 신앙과 관련된 생각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새롭고 놀라웠다는 것이 많았다고 한다.

이러한 반응은 학교 현장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이대부속초등학교에서 교학인인 4, 5, 6학년 교실에서 학년 초에 이 책을 집중적으로 활용하는데, 다만, 3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다루는 만큼 학년마다 다루는 주요점을 달리하고 있다. 4학년에서는 창조, 타락, 구속, 회개의 전체 구조를 이해

하게 하고, 창조와 타락 중심으로 깊이 다루면서 우리 생활 전반이 회복될 부분이라는 인식을 하게 한다. 5학년에서는 회복되는 실제 영역들에 대해 더욱 구체적이고 깊이 다룬다. 6학년에서는 자신의 삶에서 회복되는 체험을 실제로 해보게 함으로써 내면화를 꾀하고 있다. 많은 학생들은 자신의 공부나 놀이와 같은 영역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야 하는 영역이라는 점이 인상적이었다는 반응이 많았다.

이 책에 대한 어린이들의 반응은 이 책으로 공부한 어린이들이 이해한 본문 내용을 담은 그림으로도 나타난다. 실제로 어린이용 교재에 수록된 삽화는 이대부속초등학교에서 이 교재 본문을 공부한 학생들이 본문에 대해 이해한 바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어린이 『기독교교육선언』의 창조 부분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전체가 우리의 집(house)이 된다는 것으로, 타락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회복해야 하는 부분도 바로 '그 집(house)'인 이 세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흘은 빛, 하늘, 물과 육지라는 공간인 '집(house)'을 만드셨고, 다음 사흘은 각각의 공간을 해 · 달 · 별로, 하늘 생물로, 바다 생물 · 육지 생물 및 사람으로 채우셨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개인이 사는 집을 가꾸고 지키듯 우리 인간이 사는 집으로서의 공간과 환경인 '집(house)'을 회복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회복되는 이 세상의 제 문제를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라 나 개인, 현재의 상황 문제로 갖게 한다. 삽화 1은 그 내용을 학습한 학생이 이해한 창조 세계를 형상화한 것으로, 전 우주적인 문제를 개인화시키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삽화 2와 3도 이 책의 주요 정신을 아이들 수준에서 잘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아이들은 이 책으로 공부하면서 우리의 다양한 관계와 일과 직업 등이 예수님과 떨어뜨려 따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 회복될 수 있고, 그 안에서 완성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삽화 1



삽화 2



삽화 3

이와 같은 활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책은 어린 학생들의 생활 전반을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하여 일관적으로 지도하는데 돕는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책이라 여겨진다. 그리고 한 번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시기를 달리하면서 반복적으로 읽혀 학생들로 하여금 삶의 전반을 점검할 기회를 갖게 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이해지 이대부속초등학교 교사로 이화여자대학교 초등교육학과 아동발달과 교수(Ph. D.)을 전공하였다. 박사논문으로 <기독교교육과정 재구성에 있어서 교사의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2011)>가 있다.